

바지락

 **전국금속노동조합**

커피도 마시고 권리도 챙기고



추석맞이 노동법 체크!

필수 노동법 체크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유난히 변덕스러웠던 여름이 저물고,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판의 곡식이 여물고, 하늘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추석을 기다리며 설레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추석이 모두에게 온전히 ‘쉼’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긴 연휴를 즐기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명절에도 일터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긴 연휴를 맞아, 쉬는 노동자도, 일하는 노동자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만 쉬고 일반 노동자는 단체협약이나 연차휴가를 써야 쉬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되어 공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에 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추석 당일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나머지 2시간은 통상시급의 100%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라면,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더한 야간근로수당도 적용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 대체’ 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단, 휴일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로 바꾸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절이 낀 주라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출근만 했다면 지각이나 조퇴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보장됩니다.

추석 명절 하면 명절 보너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떡값, 명절 상여금, 명절 수당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소정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더라도 그 성질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으로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차별입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번 추석 모두 몸과 마음을 넉넉히 챙기고, 권리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을 햇살처럼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며, 즐겁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엔 쉽도, 권리도 챙기세요. 언제나 금속노조가 함께합니다.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 1811-9509

야간노동, 절대 네버!

야간 노동 없는 안전한 일터, 금속노조와 함께

‘독소루비신, 염화벤조일, 벤조페논, 에틸벤젠’ 어디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지는 모르지만 이름만 들어도 해로운 물질인 것 같습니다. 이 물질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암을 유발하는 2군 발암물질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진 물질들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발암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여러 규정으로 사용을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들과 함께 야간 노동(교대근무)도 세계보건기구가 2007년에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밤낮 관계없이 일정 시간의 수면 시간만 보장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 노동은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 일을 하도록 맞춰진 인간의 생체리듬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유해물질과 함께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자료에 의하면 2교대 근무하는 노동자 중 48.4%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2교대 근무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05.6시간, 초과 노동시간은 41.7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합니다. 이런 장시간, 야간 노동은 암을 유발하는 것뿐 아니라, 각종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유발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빵으로 유명한 SPC그룹 제빵 공장에서는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도입 이후 무려 세 분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두 새벽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야간 노동과 연장 노동이 필수가 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각종 사고 위험은 노동자 본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노동자들은 매일 매일을 산재사고 발생의 위험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야간노동은 반드시 없어야 하는 노동 형태입니다. 야간 노동없이 임금 보전이 가능할까? 생산

량을 맞출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야간 노동이 오히려 생산성을 낮추고 산재사고율을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3년부터 완성차 공장, 자동차 부품사 공장을 중심으로 주간 연속 2교대 시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임금 감소 없이 주야간 맞교대 사업장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변경했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이후 진행한 연구 사업에서는 불량률이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했으며,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만족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맙시다. 나와 내 동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야간 노동을 없애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일하다 다치지 않는 일터를 금속노조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금속노조가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야간노동 없는 안전한 일터, 금속노조가 함께 만듭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노동상담, 노조가입상담은 ☎ 1811-9509

누구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Q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희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에서 일하는 하청,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2003년에 노동조합(지회)을 설립했습니다. 무려 22년이나 되었네요. 그동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의 하청, 이주노동자와 함께 해왔습니다. 회사의 탄압도 있었지만, 하청,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작은 성과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사내하청지회를 알리기 위해 사내하청지회에서 만든 홍보물과 *이주바지락을 조선소 이주노동자 기숙사 앞에서 배포해 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하청, 이주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휴가비, 연말 성과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소식지로, 한국어를 포함 16개국 언어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Q 조선소는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조선소의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는 보통 어떻게 만나시나요?

A 지난 8월 22일에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앞에 커피 트럭을 세우고 커피와 음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보통 커피 트럭이라고 하면 팬들이 유명 연예인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이주노동자가 신기해하고 또 반가워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진행하는 행사였는데요. 일을 마치고 피곤할 텐데도 긴 줄을 서서 커피와 음료를 받아 가시더라고요.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와 인사도 나누고 준비한 선전물도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소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설문조사의 내용이 꽤 길었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준비한 실태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묻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시간 30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은 축제 같은,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라 사업에 참가한 분들 모두 즐겁고 보람찼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파악하여,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현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에는 많은 하청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해도 회사가 폐업하기 일쑤고, 막상 회사는 원청, 원청의 원청, 원청의 원청의 원청의 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8월 24일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2조는 진짜 사장(즉, 원청회사의 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소의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금 지급뿐만 아니라, 1일 8시간 작업 기준 적용, 안전한 일터, 복지 향상에 대해 진짜 사장과 직접 교섭할 기회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하청,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에 함께하고, 인간다운 삶,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가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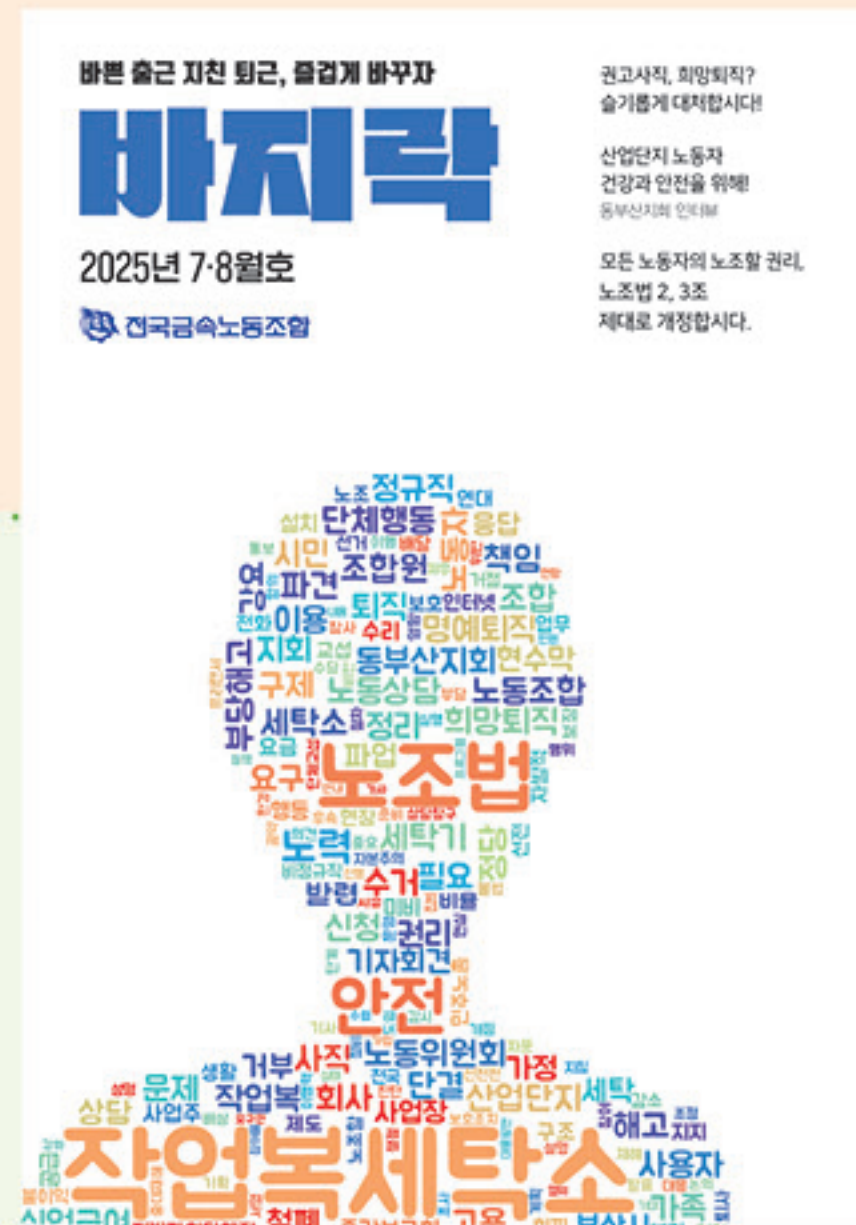
스마트폰 더욱
스마트하게 쓰는 법

QR코드를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QR

꿀팁. <바지락>을 모바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페이지 QR

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상담 전화 1811-9509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라면? QR

노조없는 노동자를 위한 꿀팁이 가득
금속노조 최신소식은? 금속노조 블로그에서!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 1811-9509

✓ 대체공휴일, 알고 계셨나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이 쉬는 날로 바뀌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설·추석·어린이날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대체공휴일은 연차를 쓰지 않아도 쉴 수 있는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만약 이 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 가산 수당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내 권리, 꼭 기억해 두세요!**

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 노동 상담 · 가입 문의 ☎ 1811-9509